

# 2인자 황각규 부회장 승진... 50대 CEO 전진배치



이봉철·김현수 각각 사장 승진  
20여개 주력 계열사 인사 단행  
전문성 갖춘 '미래 인재' 초점  
첫 여성CEO·여성 임원 30명

롯데그룹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정기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유통·식품·서비스·금융 부문 등 20여개 주력 계열사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오는 11일에도 10여개사 임원인사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100여 명의 신규 임원이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하고 그룹 내 여성임원도 3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롯데의 2018년 정기임원인사는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약속인 '뉴 롯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진용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적·성과 중심의 승진

롯데의 올해 정기임원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의 부회장 승진이다.

그는 롯데의 신규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주도하면서 그룹의 성장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그룹의 경영관리와 쇄신작업도 끝냈다. 지난해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며 롯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봉철  
롯데지주 사장



이홍열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이사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박송완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김경호  
롯데닷컴 대표이사



선우영  
롭스 대표

출범에 기여한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사장은 1986년 입사해 정책본부 재무팀장,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14년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맡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홍열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1983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입사한 이 대표는 대산MMA 대표이사 등을 거쳐 2017년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조직의 안정화와 성과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도 사장이 됐다. 김 사장은 1984년 입사해 롯데쇼핑의 CFO직을 수행했다. 2014년부터 롯데손해보험 대표를 맡았다. 이후

탁월한 경영감각으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 ◆세대교체 가속화

롯데는 경영권 분쟁 여파로 2년 만에 단행한 지난해 정기임원인사에서 105명의 신규 임원을 배출하면서 10명의 50대 CEO를 주요 계열사에 전진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화학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차세대 CEO 후보군으로 꼽히는 신규 임원을 100명 넘게 발탁한 것이 그 방증이다.

50대 CEO를 주요 계열사에 전진배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조현철 롯데알미늄 신입 대표이사과 민영기 롯데제과 신입 대표이사, 김경

호 롯데닷컴 신입 대표이사 등이 모두 50대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50대 CEO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재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철권통치하던 시절 롯데는 주요 재벌그룹 중 CEO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으나 신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급속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여성임원 대거 승진

이번 인사에서는 선우영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부문장(상무)이 롯데롭스(LOHB's)의 대표로 선임돼 '롯데그룹 최초 여성 CEO'가 탄생했다. 성인재 발굴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2020년까지 반드시 여성 CEO를 배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선우영 신입대표 내정자는 롯데하이

마트에서 생활가전 상품관리, 온라인부문 업무 등을 수행하며 옴니채널 사업 성장에 기여했다.

향후 여성 CEO로서의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롱스의 상품 소싱과 온라인 사업을 이끌며, 고객 니즈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여성임원 가운데 김현옥 롯데지주 준법경영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인터넷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전혜진 상무보, 그룹의 A.I.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김혜영 상무보도 한 단계 승진했다.

여성으로는 최진아 롯데제과 글로벌 마케팅장, 송종은 롯데알미늄 햄버거 판촉팀장이 새롭게 임원이 됐다.

롯데제과의 벨기에 길리안 법인장인 미에게 칼레바우트 상무보는 상무로 승진했다.

/박인용 기자 parkyu7854@metroseoul.co.kr

## 오늘 '애플' 상대 손해소송 개시... 2월에 36만명 추가 예정

참가자 150명, 1인당 220만원 청구  
법무법인 한누리·휘명 참가자 모집

국내에서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코리아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시작되는 첫 집단소송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후를 이유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사용자 동의 없이 단행했다. 세계 각지 아이폰 사용자들은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면 될 일이었지만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운영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타사 제품으로 옮기기 어려운 아이폰 특성을 이용했다는 것.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 50달러 할인이라는 보상을 내놨지만, 아이폰



배터리 교체 접수를 위해 대기 중인 아이폰 사용자들.

/노수아 인턴기자

배터리 원가가 1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배터리 판매 프로모션을 내놨다는 역풍을 맞았다. 때문에 보상안 발표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이 각각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

고 나섰다. 하지만 첫 집단소송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기하게 됐다. 소송 참가자는 150명이며 1인당 2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업데이트로 발

생한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 사용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다.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성능저하로 인해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해의 재판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주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법상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때문인지, 과실 때문인지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도덕적 책임이 생기고 사회적 비난여론도 거세져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해 애플은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해해 기기 업그레이드를 유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애플의 해명에도 집단소송 참가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배터리 게이트 초기 법무법인 한우리가 모집한 국내 집단소송 참가자는 3만명 수준이었지만 애플의 발표 직후 15만명 늘어 18만명이 됐다. 현재는 당시의 두 배인 36만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한우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인 위임 절차를 마친 뒤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